

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3.30.(월) KBS, 「“아들 채용해주면 정부지원금 도와줄게” 청년 취업프로그램서 ‘취업청탁’?»

○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담당자가 기업에 자기 아들 인턴 자리를 부탁, 그 대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도와주겠다고 함

2. 설명 내용

-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영기관, 기업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*하고,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.

* ▲운영기관에 관한 형사고발, 약정해지, 사업 참여 제한 사유 추가 등 약정서 개정
▲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강화 등 지침 개정 ▲부정행위 시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등

- 추가로 올해는 운영기관·참여기업 공동 면접 의무화, 운영기관 담당관의 역할 강화, 참여기업 제한 요건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음.
- 기사의 위탁기관 담당자 아들이 실제 면접을 보거나 일경험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해당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올해 사업 참여를 제한하였음.
- 앞으로 부정 청탁 등 부정행위 발생 시 사업참여 제한, 약정해지,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고, 운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.

담당 부서	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지원 (044-202-74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창만 (044-202-7715)